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 황명선

보 도 자 료
PRESS KI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1호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5 인본빌딩 3층

T. 02-784-9820 / F. 02-6788-6115
T. 02-784-9820

보 도 일 시	참 고 자 료	사 진	문 의
2024. 10. 16.(수) 배 포 즉 시 보도 가능	-	-	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 “월세 세액공제, 부처 간 협력 통해 납세자 편익 제고해야”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귀속연도 기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261만여명 추장… 신청자는 58만여명
- 황명선 의원, “제출서류 디지털화하는 등 행정개선 통해 월세세액공제 활성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월세 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황명선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년도(귀속연도 기준) 40만

명에서 2021년도 기준 58만 명으로 18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년 231만명에서 2021년 기준 26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년 17.29%에서 2021년 22.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대상자들 중 20% 수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행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복지세정과 납세자를 보듬는 세정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 · 대상자(추정치) 현황]

단위: 명, 만원

총급여규모	2019년(귀속연도 기준)		2020년(귀속연도 기준)		2021년(귀속연도 기준)	
	신청자	대상자	신청자	대상자	신청자	대상자
1천만원 이하	525	334,833	766	366,441	770	368,994
1.5천만원 이하	2,402	204,581	3,184	156,307	3,259	219,055
2천만원 이하	9,944	223,857	11,613	220,122	14,102	269,661
3천만원 이하	86,125	920,445	130,685	765,118	135,526	870,080
4천만원 이하	111,981	404,485	150,819	470,555	162,673	528,573
4.5천만원 이하	54,186	119,795	70,737	149,412	76,257	145,966
5천만원 이하	45,478	92,952	58,693	95,762	62,902	135,905
6천만원 이하	59,736	14,056	74,556	19,852	83,579	78,966
8천만원 이하	29,888	-	36,011	-	41,105	-
합 계	400,265	2,315,004	537,064	2,243,569	580,173	2,617,200
이용률 (신청자/대상자)	17.29%		23.94%		22.17%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재정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가능성 있음

국회의원 **황명선**